

태양광 이어 수소까지 미래 경쟁력 확보... '빛나는 한화'



글로벌 유망기업 투자 잇따라
美 수소트럭 니콜라 투자 대박
수소사업 진출 교두보 확보
김동관 부사장 해안 큰 역할

한화그룹이 글로벌 유망 기업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수소 사업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2018년 총 1억달러를 선제 투자한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상장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인정 받은 니콜라의 수소 트럭 사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가 보유한 니콜라 지분 가치는 상장 이후 7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선도 기업의 사업자산 일체를 인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

니콜라는 상장 첫 날인 4일(이하 현



페이지 솔루션사의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ESA)'

시 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33.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122억달러를 기록했다. 니콜라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주주총회에서 운송·에너지 분야 투자기업인 나스닥 상장사 벡토IQ와 합병안을 승인 받았다.

니콜라가 나스닥에 입성하면서,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한 니콜라 지분 가치는 7억5000만달러로 늘어났다. 두 회사는 2018년 11월 약 5000만달러씩, 총 1억달러를 선제적으로 투자해 합병법인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투자에 나선지 1년 6개월만에 보유지분 가

치가 7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화가 니콜라와 인연을 처음 맺게 된 건 2018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유망 벤처기업 발굴을 담당하는 현지 벤처 투자 전담 조직이 니콜라 투자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계열사 간 논의를 거쳐 북미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을 고민하던 한화에너지와 해외에서 친환경 융복합 사업 신규 진출을 추진하던 한화종합화학이 니콜라에 공동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계열사 중에 두 계열사의 장기 성장 방향성이 니콜라의

사업 모델과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자 최종 결정을 위해선 니콜라에 대한 정보와 수소 사업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집이 절실했다. 이 과정에서 10여년 동안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은 김동관 한화큐셀 영업총괄 전무(현 한화솔루션 부사장)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 내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은 물론, 실무진과 함께 창업주인 트레버 밀턴(39)을 직접 만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니콜라의 사업 비전이 한화의 미래 사업 방향과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 부사와 밀턴은 지금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주요 계열사는 니콜라 상장을 계기로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한화큐셀은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할 수 있고, 한화솔루션 첨단소재부문은 수소 충전소용 탱크나 트럭용 수소 탱크를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지난 5일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벤처기업 페이지 솔루션의 사업 및 자산을 인수했다. 페이지 솔루션은 2005년 영국에서 설립된 위성통신 안테나 연구개발 전문 회사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인수로 페이지 솔루션의 전문인력과 기술자료·지적재산권(IP)·테스트 장비 등 유형자산을 포함한 원천기술까지 확보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신사업 발굴에 매진, 지난해부터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투자를 검토해왔다. 코로나 19 여파로 페이지솔루션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자, 적극 인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최고 기술력의 다기능 레이더 전문기업인 한화시스템은 기존의 통신·레이더 기술과 연계성이 높은 인공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부문에 진출, 저궤도 위성 안테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항공 우주 시스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신입 공채 없애고 '연중 상시' 채용

신입 70% 채용 연계 인턴으로 선발

LG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LG는 올 하반기부터 신입사원을 연중 상시 선발체제로 채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 상하반기 정기 채용을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입사원 중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채용 연계형 인턴십은 평균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지원자의 적합성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자는 회사와 희망 직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

LG는 현장 중심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영 환경과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합격 후에는 희망 직무에 지원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떨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도 LG는 산학협력과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 사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LG AI 해커톤' 참가자에 입사와 인턴 기회를 주는 게 대표적이다.

인적성 검사도 9월부터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인성 검사 문

항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적성 검사 문제 유형을 온라인에 최적화해 응시 시간도 종전 3시간에서 1시간대로 대폭 단축시켜 응시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인 LG커리어스에서는 9월부터 상담 챗봇 서비스를 통해 직무별 인재상과 역량 등 채용 정보와 채용 전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한편 LG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우수 인재 선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 LG화학 전지사업본부와 생명과학사업본부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공고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세척기 설치 '똑딱'

'원스톱 설치솔루션' 제공

삼성전자가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간편하고 빠르게 설치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삼성전자는 10일부터 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 구매 고객에 '원스톱 설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원스톱 설치 솔루션은 제품 구매 후 1~2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주는 서비스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가구장 공사 업체와 별도로 계약해 싱크대 리폼 공사를 진행해야 했어, 과정이 번거로운데다가 설치까지 4~5일이 소요됐었다.

삼성전자는 삼성 식기세척기 설치를 전담하는 협력사 전문 설치팀을 통해



삼성전자는 빌트인 식기세척기 원스톱 설치 솔루션을 실시한다. /삼성전자

기존 가구장을 철거하거나 상판 보강 작업 등 싱크대 리폼 공사부터 제품 설치까지 맞춤형으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주방 구조에 맞춰 삼성 전기레인지어를 올리는 직렬 설치나 음식물 처리기 옆에 배치하는 병렬 설치 등도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벨벳 타임랩스 공모전'

LG전자가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LG 벨벳 타임랩스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G 스마트폰에 있는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해 LG 벨벳의 4가지 색상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촬영, 해시태그와 함께 LG 모바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LG전자는 흰 구름(오로라 화이트), 밤이 찾아온 도시(오로라 그레이), 푸른 들판(오로라 그린), 붉게 빛나는 노을(일루전 선셋) 등 다채로운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응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출품작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우수작 4개를 선정해 LG 벨벳을 증정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AR로 집에서 라이브공연 즐기세요"

LGU+ AR라이브 '아티스트' 출시

LG유플러스는 5G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동작업을 통해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을 360도 3D 증강현실(AR) 콘텐츠로 제공하는 AR라이브 콘텐츠 '아티스트'를 U+AR 앱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U+AR 앱을 통해 구현되는 뮤지션의 실시간 3D 콘텐츠를 360도 각도에서 감상한다. 뮤지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공연영상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게 됐다.

이날부터 공개되는 AR 콘텐츠는 가수 민수의 '점', '민수는 혼란스럽다', '커다란' 3곡과 스타라장의 '굿잡',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2곡, 창모의 'Sw



모델들이 AR라이브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oosh Flow' 등 총 6곡으로, U+AR 앱을 통해 해당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중 가수 창모의 'Swoosh Flow'는 이달 4일 신규 발매된 곡으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U+AR가 처음이다. /김나인 기자 silkn@

KT, AI로 당뇨병 환자 식단관리 나선다

헬스케어 업체·병원과 업무협약 사진으로 영양소 분석해 솔루션

KT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레이 포지티브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손잡고 '의료정보기반 당뇨병 관리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현재 휴레이 포지티브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사업'에 KT의 AI 식단관리 솔루션을 개발 및 지원할 예정이다.

KT가 선보이는 AI 식단관리 솔루션은 당뇨병 등 질환으로 식단관리가 필수인 환자들이 식단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KT는 올해 하반기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휴레이포지티브가 선보일 당뇨병 관리 앱에서 사진 촬영만으로 식사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식단 등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가 일일이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AI 식단관리 솔루션은 사진 촬영만으로 음식의 종류, 영양 및 칼로리 분석과 기록이 가능하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식사 및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별 맞춤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